2026년 3월 11일 | Global Asset Research

해외크레딧

KP: 3월, 시장 기능과 후행 프리미엄을 봐야 할 때

Global Credit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alyst 하형민 hyeongmin.ha@hanafn.com

2월: 금리가 끌고 상대적으로 잘 버틴 KP

2월 KP 시장은 금리 하락이 성과를 주도한 달이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달러 회사채 금리도 낮아졌다. 다만, 미국 IG는 금리 하락 여파로 스프레드가 10bp 이상 확대된 반면 아시아 IG는 2.3bp 확대에 그쳤고, KP는 국책/공기업 -4.5bp, 민간기업 -1.1bp로 오히려 타이트닝이 나타났다. 특히 2월 초 외평채는 3년물 가산금리의 역사적 저점을 경신하며 KP 상단의 방어적 수요를 재확인했다. 이는 2월 수급이 펀더멘털 최상위의 KP 상단에 우호적이었음을 의미한다.

구조적으로 KP 상단(국책/공기업)과 하단(민간기업)의 성격 차이는 분명하다. KP 상단의 미국 IG와의 일간 스프레드 변동 기준 최근 12개월 롤링 상관계수(0.35) 및 베타(0.24)를 보면 동행 흐름을 보이나, 타 아시아 우량등급(0.56/0.50)이나 국내 민간기업(0.48/0.37)보다 낮은 모습을 보였다. 6개월로 좁혀보면 미국 IG와 국책/공기업 간 상관계수는 0에 수렴하며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한 발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KP 상하단 스프레드 갭은 43bp로 최근 5년 평균을 하회 중이며, 백분위 기준 하위 11%에 머물러 있다. 이는 스트레스 국면 지속 시 상단보다 더 크게 흔들릴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미국 국채 금리 위에서 거래되는 자산들이지만, KP 상단이 스트레스 국면에서는 상대적 방어 자산이 됨을 알 수 있다.

3월: 시장 기능 정상화와 금리 변동성이 관건

3월 이후 시장은 스프레드 자체보다 시장 기능과 금리 변동성을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다. 전쟁 충격 직후 미국 공모 시장에서 예정 딜이 철회되며 발행시장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높은 변동성이 이어질 경우, 발행시장 중단-재개의 과정에서 NIP가 다시 확대될 압력이 남아 있다. 또한 4월 KP 만기 물량(약 $52억)에 대한 선제 차환이 지연될 경우 발행 수요가 4월 초로 겹치며 NIP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유통시장에서는 미국과 유럽이 먼저 전쟁 충격을 반영해 스프레드 확대 후 되돌린 반면, 아시아 IG와 KP는 뒤늦게 프리미엄이 재부과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이는 전쟁 이벤트가 미국보다 아시아와 KP에 후행적으로 프라이싱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미국 IG 스프레드 안정만으로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KP 시장은 방향성 베팅보다 해석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국면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① 미국 10년물 금리의 안정, ② 발행 재개 후 NIP 정상화, ③ 아시아 IG와 KP의 후행적 프리미엄 재부과 여부, ④ KP 상하단 간 스프레드 갭 재확대 가능성 등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2월: 금리가 끌고, 상대적으로 잘 버틴 KP

2월은 금리가 만든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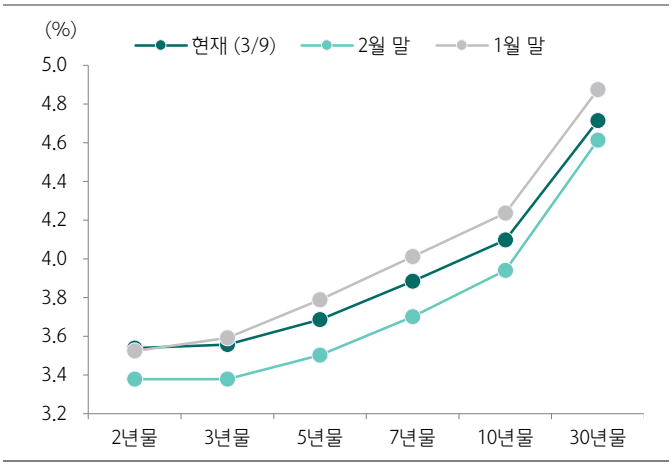
2월은 금리가 주도한 시장이었다. KP 달러 표시 채권의 벤치마크 금리인 미국 국채 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이러한 시기에는 우선 듀레이션이 성과를 창출한다. 실제로 1월 말 대비 2년물 15bp, 5년물 29bp, 10년물은 30bp가량 하락하면서 달러 회사채 금리 역시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AI 관련 불확실성과 사모대출 우려 등 위험자산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국채 강세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글로벌 크레딧 시장에서는 하이일드(HY) 대비 국채 금리 민감도가 높은 투자등급(IG)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기록했다[Appendix 참고].

그런데, 미국 IG 시장의 경우 금리가 내려간 효과를 보았지만 크레딧 스프레드는 오히려 1월 대비 확대되었다. 미국 IG 스프레드가 10bp 이상 확대된 것과 달리, 아시아 IG는 2.3bp 확대되었고 KP의 경우 오히려 타이트닝이 나왔다(국책/공기업 -4.5bp, 민간기업 -1.1bp).

2월 동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다. 먼저, 2월 수급은 펀더멘털 최상위의 KP 상단에 우호적이었다. 두 번째는, 시장 참여자들이 KP 상단을 아직은 방어 가능 자산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2월 초 정부 외평채 발행 흥행이 이를 방증하는 대표적 사례다. 30억 달러 규모 조달에서 작년에 이어 다시 한 번 역사적 저점의 가산금리(3년물 T+9bp)를 경신했다. 당시에도 그린란드 발 불안이 잔존한 상태였고, 관세 이슈가 재부각되던 시기였다. 2월 말 한국 국가신용등급이 Moody's 기준 Aa2로 재확인되고, 등급 전망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우호적인 대외 심리의 근거로 작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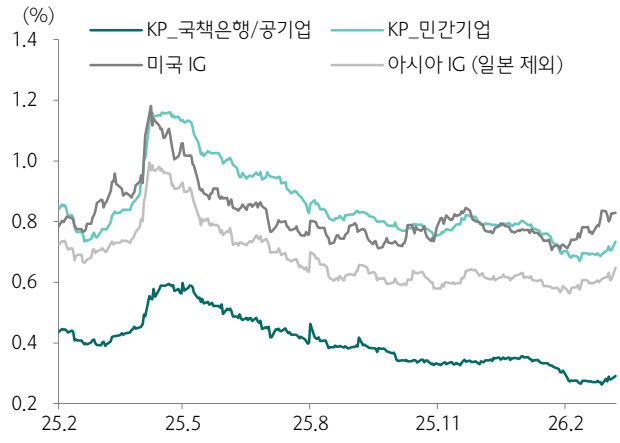
정책금융기관이나 공기업은 KP 시장 안에서도 사실상 별도 시장처럼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스트레스 국면에서도 민간기업 대비 충격 버퍼가 있고, SSA 등 글로벌 투자 수요 역시 안정적이다. 2월에도 이러한 성격이 재확인됐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도표 1. 미국 국채 금리 커브 변화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2. KP, 미국 및 아시아 (일본 제외) IG 크레딧 스프레드 추이



주: 달러 표시 채권 지수 기준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3. 2026년 2월 주요 KP물 (USD) 북빌딩 현황

발행자	북빌딩 일자	금액 ($mn)	트랜치	최초제시 금리	최종 금리	주문배수	신용등급 (Moody's/S&P/Fitch)
재정경제부	2월 5일	1,000	3년 고정	T+13	T+9	4.2	Aa2/AA/AA-
		2,000	5년 고정	T+16	T+12	3.4	Aa2/AA/AA-
미래에셋증권	2월 24일	300	3년 고정	T+110	T+85	-	Baa2/BBB/-
		300	6년 고정	T+115	T+88	-	Baa2/BBB/-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상대적으로 견고한 KP 상단과 민감한 하단

한국은 외부 충격 시에도 바로 자금 조달이 막히는 구조의 국가는 아니다. KP 상단, 특히 Sovereign Risk에 가까운 발행사들이 신용 시장에서 기본적인 대외 신인도를 만든다. 이러한 관점에서 글로벌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국책은행, 최상위 공기업 그룹은 상대적으로 홀딩이 유효한 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다. 외평채 스프레드가 10bp 초반대인 가운데, 국책은행/공기업 KP는 1월 말 이후 여전히 30bp선을 하회하고 있고 민간기업의 경우 70bp대이다. 단순히 스프레드가 낮다는 뜻만은 아니다. 시장이 불안할수록 먼저 기준점이 되는 그룹이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수치로 볼 수 있다.

관계성을 보면 국책은행/공기업 KP의 방어성은 더욱 짙다. 일간 스프레드 변동 기준 미국 IG와의 최근 12개월 롤링 상관계수를 보면, 국책은행/공기업 KP 0.35, 민간기업 0.48, 아시아 IG는 0.56이다. 6개월로 산출 기간을 좁혀보면 미국 IG와 국책은행/공기업 간 상관계수는 0에 수렴하며 최근 달러채 시장의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한 발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미국 IG 대비 최근 12개월 기준 베타를 보더라도 국책은행/공기업 0.24, 민간기업 0.37, 아시아 IG 0.50로, 민감도 역시 타 아시아 우량등급이나 국내 민간기업보다 낮은 모습을 보였다.

한편, KP와 아시아 IG의 관계성을 보면, 미국 IG보다 더 높은 동행성을 보였다. 12개월 기준 민간기업물의 아시아 IG 대비 상관계수와 베타는 각각 0.80, 0.69로 미국 IG 대비 0.48, 0.37을 유의미하게 상회했다. 국책은행/공기업물 역시 아시아 IG와의 상관계수와 베타가 각각 0.68, 0.52로 미국 IG 대비 0.35, 0.24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미국 국채 금리 위에서 거래되는 자산들이지만, KP 상단이 스트레스 국면에서는 아시아 프리미엄을 받되 민간기업보다 덜 영향을 받는 상대적 방어 자산이 됨을 알 수 있다.

민간기업 KP물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상대적 고베타의 특징을 보인다. 하나는 정책적 보호막이 국책은행/공기업 대비 약하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 기능이 흔들리는 경우 유동성 프리미엄이 더 빨리 재부과된다는 점이다. 이에 매크로 이벤트가 발생할

때 상단은 상대적으로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하단은 더 크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2023년 SVB 사태가 대표적 사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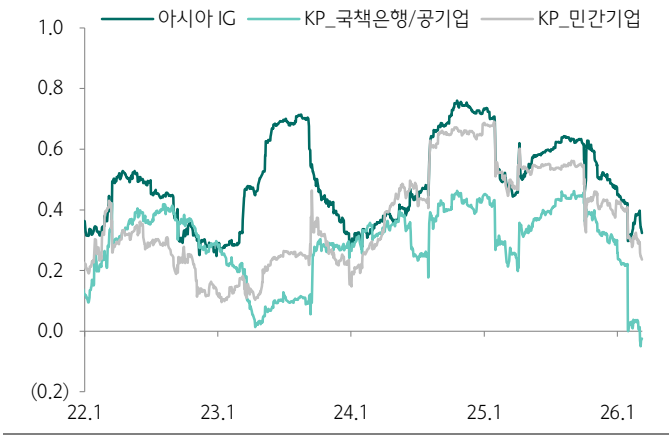
현재 국책은행/공기업물과 민간기업물의 스프레드 갭은 43bp로 1월 말 이후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해당 갭이 충분히 완충적인지의 여부이다. 최근 5년 평균 갭은 63bp, 표준편차는 19bp이고, 현재 갭의 z-score는 -1σ, 백분위로는 하위 11% 수준이다. 다시 말해, 지금의 스프레드 갭은 역사적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그 완충력 역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전술한 베타 기준 민감도에서도 보았듯이, 스트레스가 이어질수록 상단보다 하단이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도표 4. KP 스프레드의 대외 민감도: 미국 IG 대비 아시아 IG와의 높은 연결성

비교 대상	기준	12M 상관계수	12M 베타	6M 상관계수	6M 베타
아시아 IG	vs 미국 IG	0.56	0.50	0.32	0.25
KP 국책/공기업		0.35	0.24	-0.03	-0.02
KP 민간기업		0.48	0.37	0.23	0.14
KP 국책/공기업	Vs 아시아 IG	0.68	0.52	0.52	0.32
KP 민간기업		0.80	0.69	0.74	0.57
KP 민간기업	vs KP 국책/공기업	0.54	0.62	0.47	0.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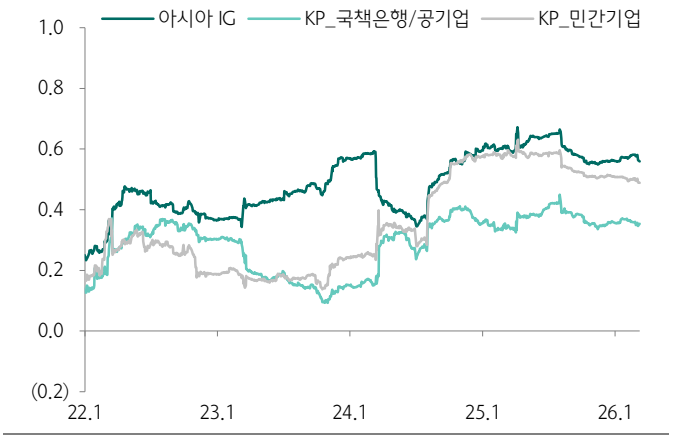
주: 상관계수와 베타는 달러 표시 크레딧 지수의 일간 ΔOAS를 기준으로, 최근 6개월(126영업일), 최근 12개월(252영업일) 롤링 수치를 산출.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5. 미국 IG 스프레드 변동과의 6개월 상관계수 추이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6. 미국 IG 스프레드 변동과의 12개월 상관계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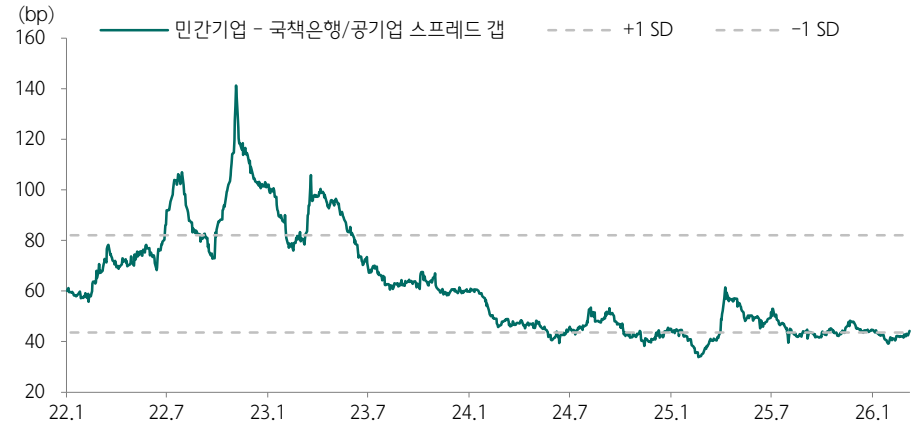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백분위 하위 11% 수준의 섹터 간 스프레드 갭

약해진 민간기업 KP의 완충력

도표 7. 국책은행/공기업 섹터와 민간기업 섹터 간 스프레드 갭 추이



주: 달러 표시 채권 기준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3월: 시장 기능 정상화와 금리 변동성이 관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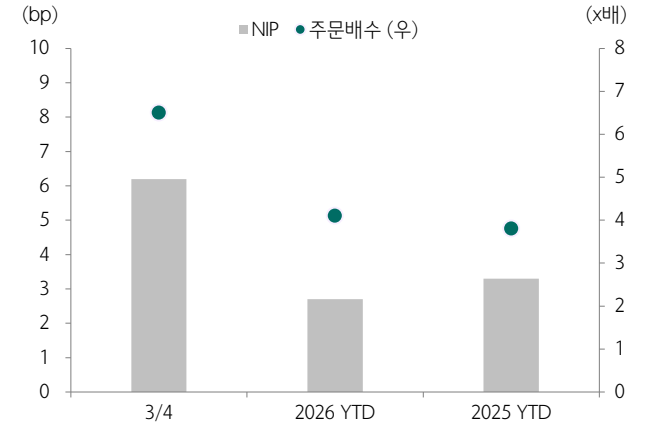
발행시장 회복이 필요

3월 KP 시장을 이해함에 있어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것은 스프레드의 절대 레벨보다는 시장 기능이라 생각되며, 특히 발행시장 회복 여부에 주목해야 한다. 이번 전쟁 이벤트의 1차 충격은 가격 급변보다 시장 기능 훼손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이란 공격 직후 미국 공모 시장에서 대부분의 예정 딜이 철회되었다. 그러나 이틀 뒤(3/4) 미국 IG에서는 약 180억 달러, HY에서는 약 30억 달러 규모의 발행이 재개되었고, 장기물에서는 NIP가 거의 없이 소화된 딜도 있었다(ETN 30년물 $10bn -2bp, CP 30년물 $0.6bn -3bp 등). 아시아 달러채 시장의 경우 일본 노린추킨은행이 북빌딩을 원활히 마무리하면서 분위기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즉, 아직까지는 우량 발행사에 대해 절대수익률 수요가 여전히 확인되고 있으며, 수요 붕괴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반대로 만약 다시 시장이 닫히거나 NIP가 빠르게 확대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시장이 다시 보수적으로 변화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뉴스 플로우에 따라 시장이 다시 멈추면 투자자들의 분위기는 조금 더 관망으로 쏠릴 수 있다. 발행자들 역시 시장 자체의 냉각에 주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높은 변동성이 이어질 경우 유통 스프레드가 일부 되돌려지더라도, 발행시장 재개 시 NIP가 다시 확대될 압력이 남아 있다. 즉, 3월 KP 시장은 추가 조달의 가능 여부와, 가능하다면 어느 수준의 NIP가 요구되는가가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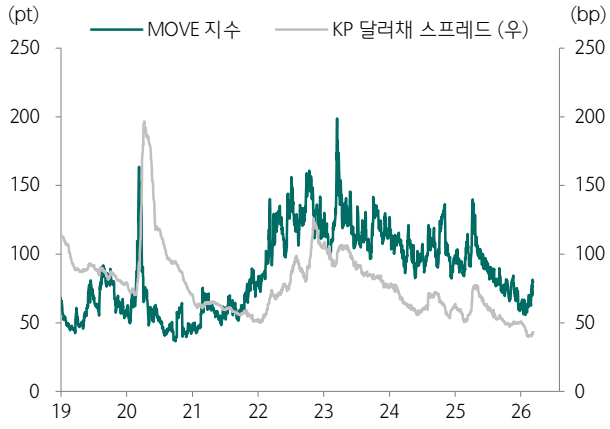
2021년 이후 KP 시장의 발행 패턴 상 135일 룰과 분기 초 자금 집행 등으로 분기 말로 갈수록 발행 규모가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문제는 이번처럼 변동성이 높아지는 국면에서는 예정 딜이 미뤄지며 차환도 함께 지연된다는 점이다. 4월 만기 예정 물량이 약 52억 달러 규모인데, 3월 말까지 선제 차환이 충분히 진행되지 못하면 4월 초 발행 수요가 겹치며 NIP가 다시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발행 재개 시점과 차환 수요가 어느 가격에 시장에 복귀하는지가 이후 분위기를 가늠할 중요 변수가 될 것이다.

도표 8. 일시 중단 이후 3/4 재개된 미국 IG 발행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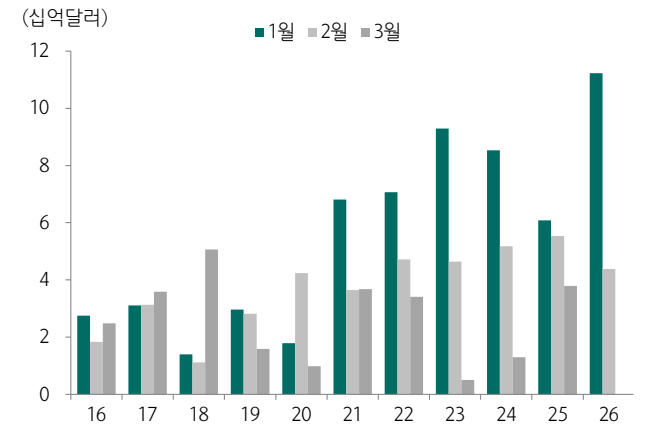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9. 미국 채권시장 변동성과 KP 스프레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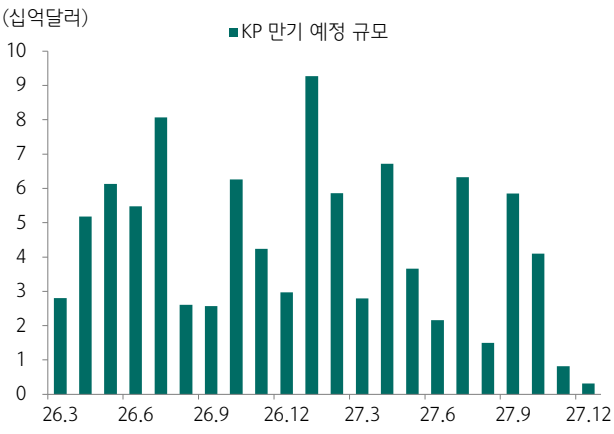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10. 1~3월 KP물 발행 패턴. 분기 말로 향할수록 감소



주: (1) USD 이외 통화는 발행 당시 환율로 USD 환산. (2) 블룸버그 리그테이블 기준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11. 4월 만기 예정 물량에 대한 선제적 차환은 다소 부담



주: (1) USD 이외 통화는 발행 당시 환율로 USD 환산. (2) 블룸버그 리그테이블 기준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12. 2026년 3~4월 주요 만기 예정 KP 채권

발행자	만기일	금액 ($mn)	통화	신용등급 (Moody's/S&P/Fitch)	비고
한국가스공사	3 월 22 일	100.0	USD	Aa2/-/AA-	-
우리카드	3 월 23 일	200.0	USD	A3/-/-	-
신한은행	3 월 24 일	500.0	USD	Baa1/BBB+/BBB+	후순위채
네이버	3 월 29 일	800.0	USD	A3/A-/-	-
한국석유공사	4 월 3 일	550.0	USD	Aa2/AA/-	-
한국주택금융공사	4 월 6 일	133.6	AUD	Aaa/AAA/-	커버드본드
한국전력공사	4 월 6 일	500.0	USD	Aa2/-/AA-	-
한국석유공사	4 월 14 일	500.0	USD	Aa2/AA/-	-
한국광해광업공단	4 월 15 일	500.0	USD	A1/A+/-	-
SK 온	4 월 16 일	250.0	USD	-	-
기아	4 월 21 일	300.0	USD	A3/A-/-	-
한국산업은행	4 월 27 일	500.0	USD	Aa2/AA/AA-	-
한국수력원자력	4 월 27 일	500.0	USD	Aa2/AA/AA-	-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벤치마크 금리가 안정된 뒤 스프레드를 보아도 늦지 않다

성과 측면에서 지금 크레딧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수는 여전히 스프레드보다는 벤치마크 금리인 미국 국채 금리이다. 전쟁과 AI, 사모대출 우려가 시장 변동성을 키웠지만, 지정학 충격의 금리 영향은 결국 기대 인플레이션 경로를 통해 나타난다. 실제로 하락 흐름을 보이던 미국 국채 금리는 전쟁 발발과 함께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10년물 기준, 3.9% 부근에서 지지 후 다시 4.1% 레벨까지 상승했다는 것은 회사채 시장이 아직 금리 변동성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의미이다. 즉, 금리가 안정되면 스프레드 관리가 용이해질 것이나, 금리가 불안정해지면 스프레드가 잠시 안정되더라도 안심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 국면은 스프레드의 확대 정도보다 금리의 향방이 성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유통시장의 스프레드만 보았을 때 KP 시장은 두 단계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 첫 번째는 충격 단계다. 국채 금리 상승 속에 미국과 유럽 IG 스프레드가 가장 먼저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이벤트 발생 시 가장 유동적인 시장이 먼저 움직인다는 원칙이 그대로 드러났다. 두 번째는 되돌림과 지연 반응 단계다. 전쟁 발생 전 불안감이 높아지던 상황에서 미국의 이란 직접 타격 국면까지(2/26~3/2) 미국 IG 스프레드는 5.0bp, 유럽 IG가 6.1bp 확대됐지만, 아시아 IG는 1.6bp, 국책은행/공기업 KP와 민간기업 KP는 약 1bp 확대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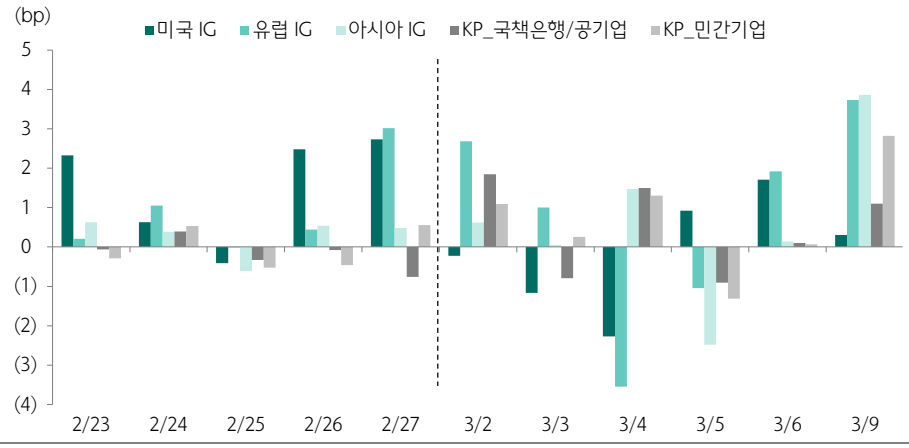
그러나 이후 지정학 불확실성 완화 가능성이 반영된 3/3~3/4에는 미국 IG와 유럽 IG가 각각 3.4bp, 2.5bp 되돌린 반면, 아시아 IG와 KP는 0.7~1.6bp가량 추가 와이드닝이 나타났다. 이는 시장이 지정학 이벤트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재부과하는 방식으로 전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월 첫 주말 이후 흐름 역시 원유 운송 차질과 불안 국면 심화 가능성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미국 대비 아시아 IG와 KP 스프레드가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3월의 KP 유통시장 흐름은 미국 IG 스프레드 안정 시에도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아시아 리스크 프리미엄이 얼마나 뒤늦게 프라이싱되고 있는지, KP 시장 내에서는 민간기업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등을 주시해야 한다. 또한 채권시장의 불안 요소가 전쟁만이 전부는 아니다. AI disruption과 사모대출 시장에 대한 우려가 이미 누적되어 있었고, 이번 충격은 그 위에 지정학 이벤트가 추가로 겹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지정학 이벤트가 빠르게 진정되더라도, 시장이 곧바로 연초와 같은 우호적 수급 국면으로의 즉각적인 복귀를 기대하기에는 이르다.

종합해보면, 현재 KP 시장은 방향성 베팅보다 해석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국면이다.
① 10년물 기준 미국 국채 금리가 4.1% 부근에서 다시 안정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② 발행시장이 재개된 후 신규 발행 프리미엄이 얼마나 정상화되는지를 보아야 한다.
③ 미국 IG 시장의 안정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IG와 KP에 후행적 프리미엄이 부과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④ 국책은행/공기업물 등 KP 상단과 민간기업물 간의 스프레드 갭이 충분한 완충을 제공하는 수준으로 다시 확대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쟁이 계속해서 채권시장 변동성을 높일지는 결국 유가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크게 오르느냐와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게 고착화되는가에 달려 있다. 둘 중 하나만 약화된다면 전쟁의 금리 여파는 생각보다 짧게 마무리될 수 있다.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더라도 금리가 안정되고 발행시장 기능이 회복된다면, 절대수익률 투자 수요 하에 KP 시장은 제한적인 스프레드 확대 범위 내에서 기능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금리가 다시 흔들리고 미국 회사채 시장 전반에서 프리미엄이 추가로 확대된다면, 아시아 IG와 KP물에 대한 충격이 지연되어 나타날 수 있어 보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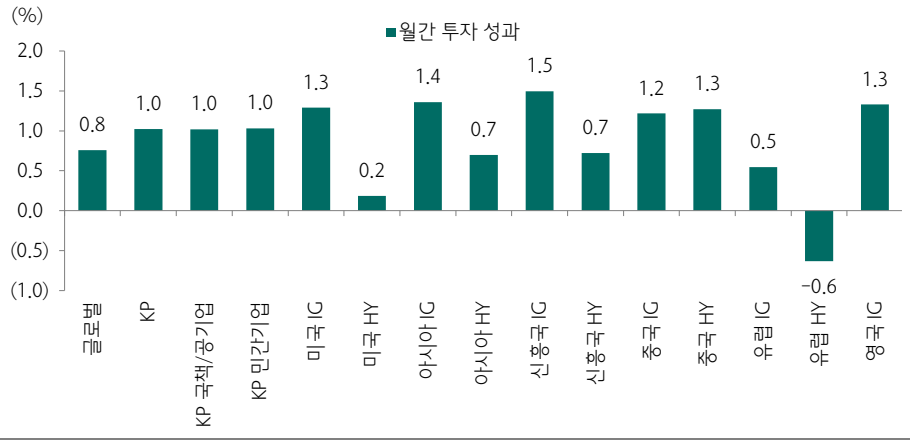
도표 13. 미국의 이란 직접 타격(2/28) 전후 일별 크레딧 스프레드 변동 폭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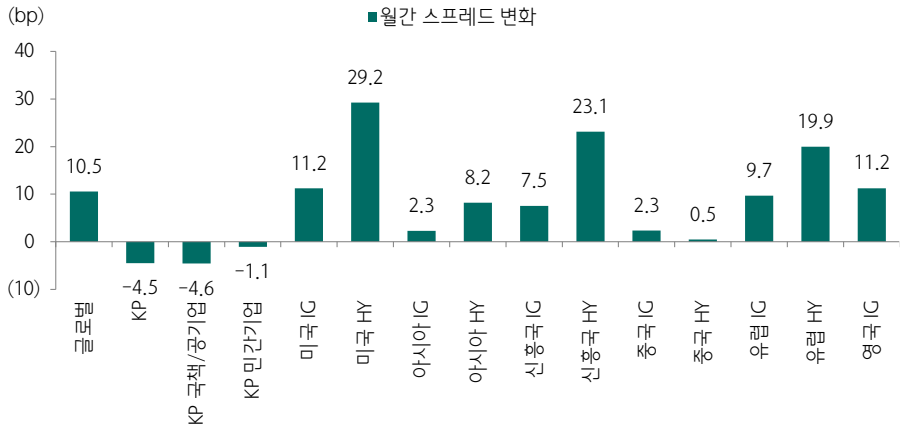
Appendix.

도표 1. 2월 주요 권역별 회사채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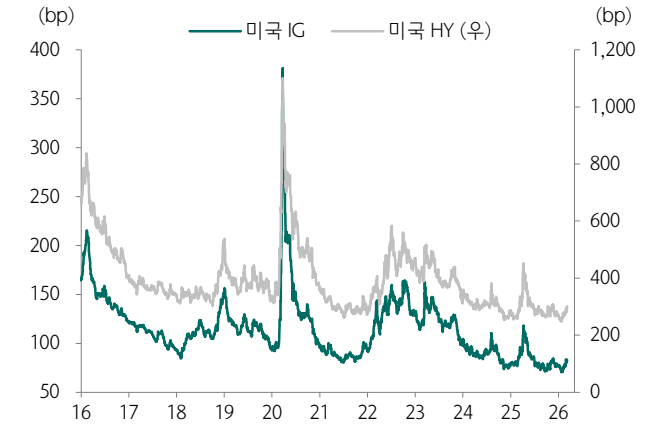
주: (1) Total Return 인덱스 기준. (2) KP, 아시아, 신흥국, 중국은 달러 표시 채권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2. 2월 주요 권역별 크레딧 스프레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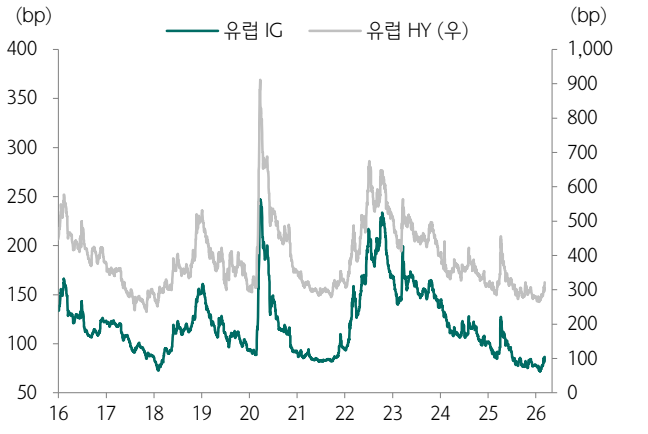
주: (1) Total Return 인덱스 기준. (2) KP, 아시아, 신흥국, 중국은 달러 표시 채권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3. 미국 크레딧 스프레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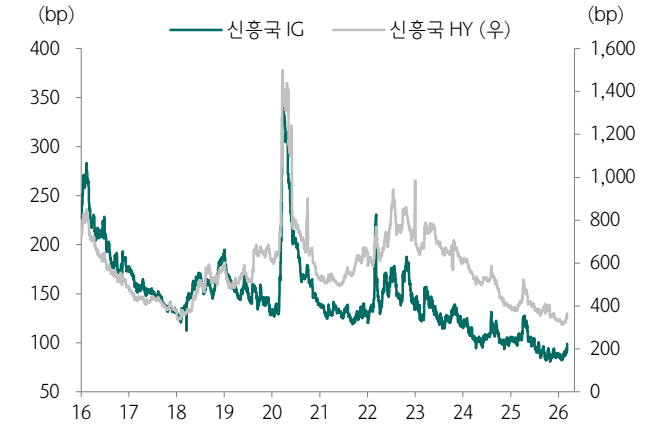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4. 유럽 크레딧 스프레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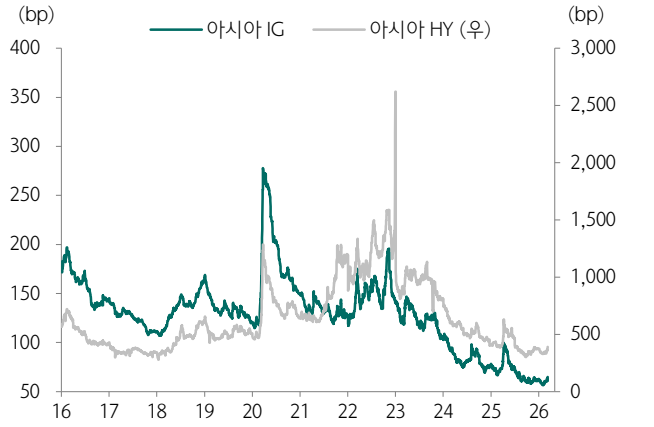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5. 신흥국 USD 크레딧 스프레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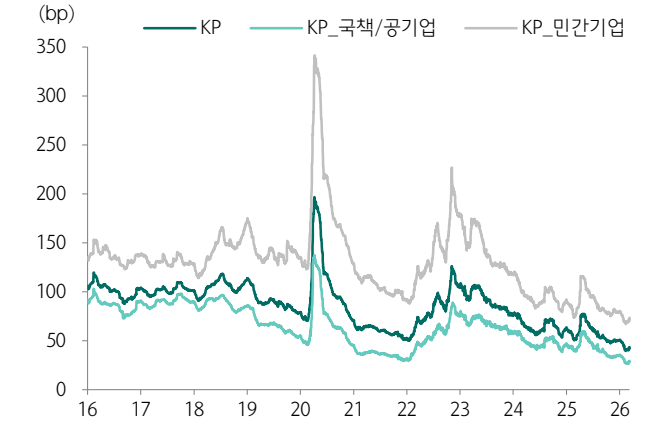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6. 아시아 USD 크레딧 (일본 제외) 스프레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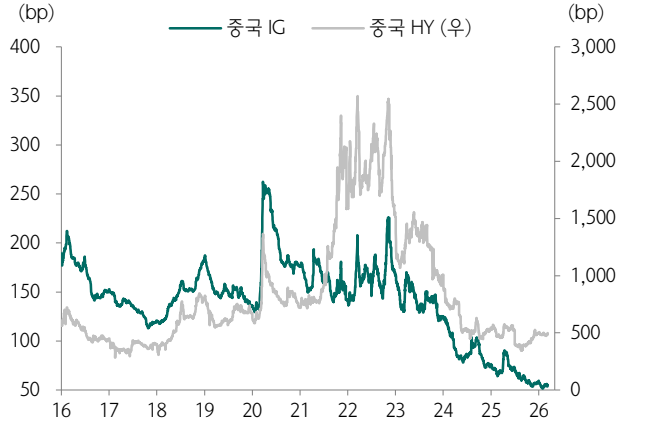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7. KP USD 크레딧 스프레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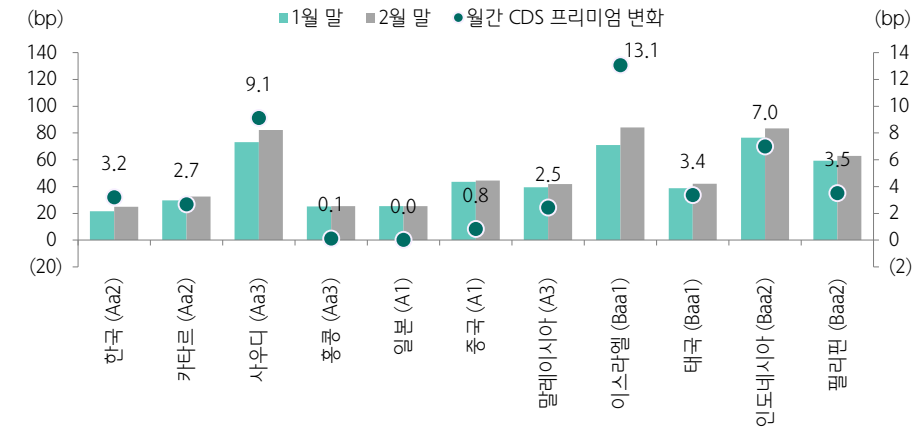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8. 중국 USD 크레딧 스프레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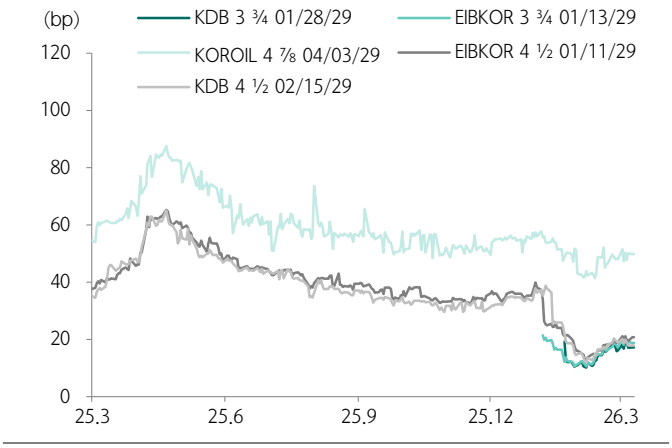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9. 2월 아시아 국가별 5년 CDS 프리미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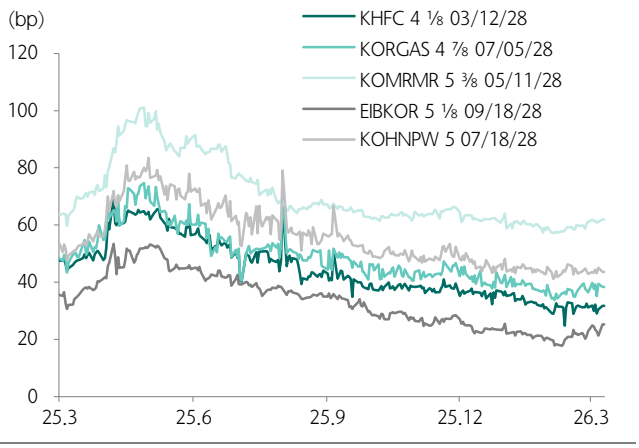
주: 괄호는 Moody's 국가신용등급을 의미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도표 10. 주요 국책/공기업 KP 스프레드 추이 (잔존만기 2~3년)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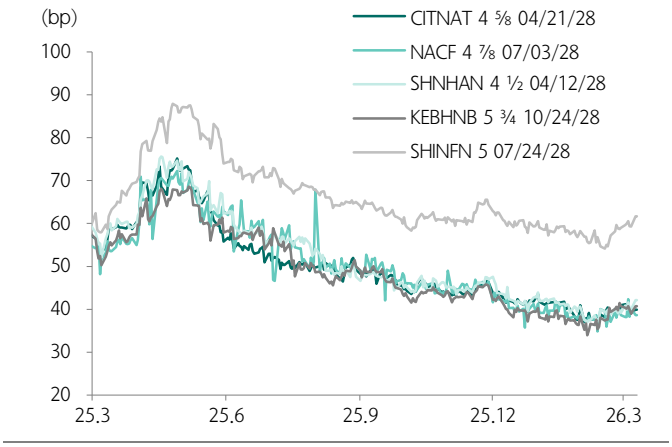
주: 잔존금액 $1억 이상, 유동성 스코어 상위 달러채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11. 주요 국책/공기업 KP 스프레드 추이 (잔존만기 2~3년)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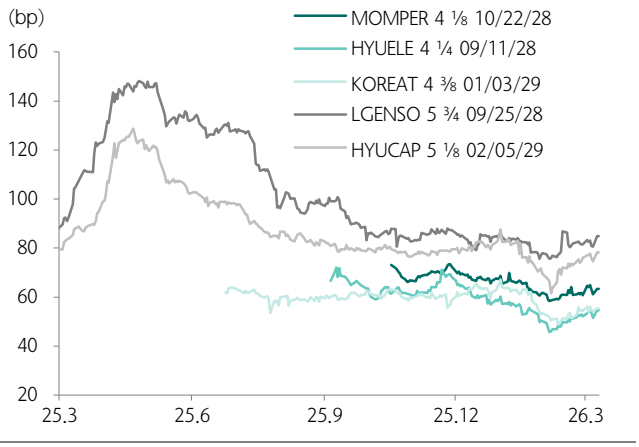
주: 잔존금액 $1억 이상, 유동성 스코어 상위 달러채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12. 주요 민간기업 KP 스프레드 (잔존만기 2~3년)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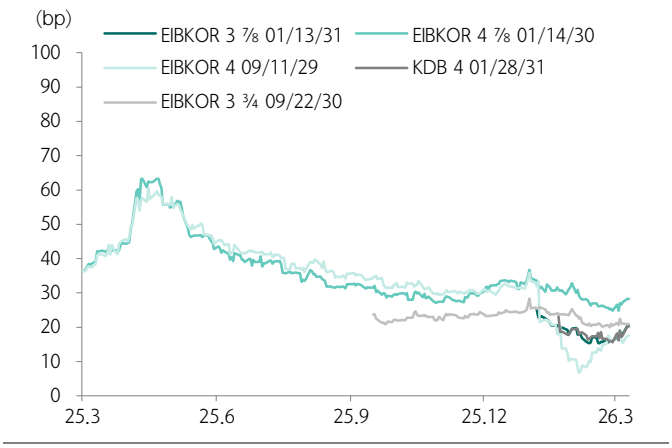
주: 잔존금액 $1억 이상, 유동성 스코어 상위 달러채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13. 주요 민간기업 KP 스프레드 추이 (잔존만기 2~3년)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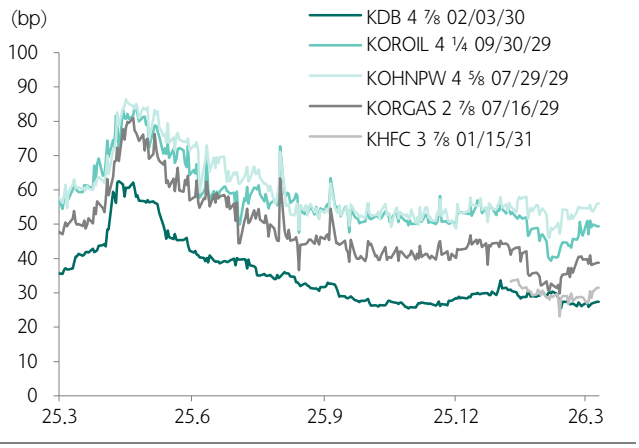
주: 잔존금액 $1억 이상, 유동성 스코어 상위 달러채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14. 주요 국책/공기업 KP 스프레드 추이 (잔존만기 4~5년)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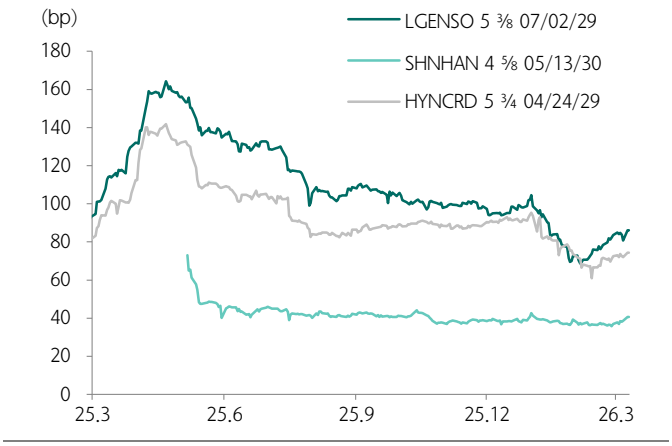
주: 잔존금액 $1억 이상, 유동성 스코어 상위 달러채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15. 주요 국책/공기업 KP 스프레드 추이 (잔존만기 4~5년)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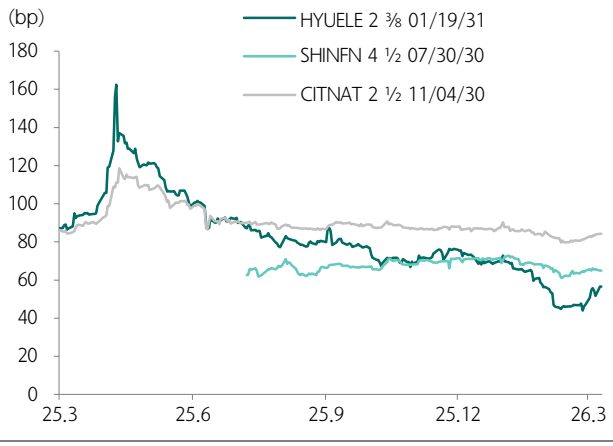
주: 잔존금액 $1억 이상, 유동성 스코어 상위 달러채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16. 주요 민간기업 KP 스프레드 추이 (잔존만기 4~5년) ①



주: 잔존금액 $1억 이상, 유동성 스코어 상위 달러채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17. 주요 민간기업 KP 스프레드 추이 (잔존만기 4~5년) ②



주: 잔존금액 $1억 이상, 유동성 스코어 상위 달러채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